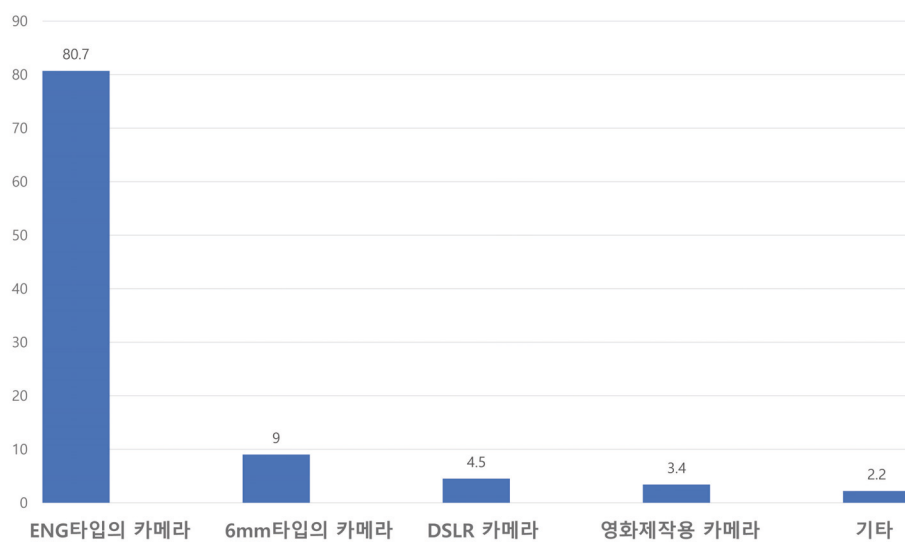


영상기자들, UHD시대에도 주취재장비로 ‘ENG카메라’ 가장 선호

협회원 대상 설문조사…10명 중 8명 차세대 카메라로 ‘ENG카메라’ 선택
취재현장에서 MNG장비 사용 확대로 근무환경 악화, 사고 스트레스도 커져

HD에서 UHD로의 전환과정에서 주취재장비로써 어떤 카메라장비를 채택하기를 바랍니까?
(협회원 조사 88명 응답) (6/24~25)



한국영상기자협회(회장 나준영)가 협회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6월 24일, 25일 이틀 동안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많은 영상기자들이 UHD방송을 위한 주취재장비로서 ENG카메라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지상파방송 UHD 전환 일정에 따라, 1년 뒤인 2023년까지 지상파방송사들은 UHD방송망을 전국의 시·군 지역으로 확대하고, 2025년까지 UHD 콘텐츠의 무편성비율을 50%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이에 따라 지상파방송사들은 물론 함께 콘텐츠경쟁을 벌이는 종합편성채널과 뉴스전문채널 방송사들은 UHD방송을 위한 장비 및 제작, 송출시설 확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보도영상 분야에서는 2000년대 후반 진행된 HD 카메라장비들이 노후화됨에 따라, UHD 전환일정에 맞춰 새로운 영상취재 장비를 교체하기 위한 논의와 움직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협회는 이런 변화의 분위기에 맞춰, 전국의 영상기자들이 UHD 전환에 대해 갖고 있는 고민들을 공유하고, UHD 전환 과정에서 장비의 사용자와 취재, 제작현장에 맞는 변화를 만들어 가

기 위해 이번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영상기자들의 80.7%가 UHD 방송시대의 주취재장비로서 여전히 ENG카메라를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소형화된 디지털 영상장비들이 출시되고, 경제성 등을 이유로 ‘취재용 카메라를 기존의 ENG타입이 아닌 6mm카메라형태의 소형카메라나 DSLR카메라로 대체하면 안 되는가 하는 의문’이 방송계 일부와 일반시민들을 통해 나오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뉴스취재를 위한 안전성과 편리성이 ENG카메라의 가장 큰 선호 요인

취재용 기본UHD카메라 도입을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영상기자들 중 48.7%는 영상취재시 안정성과 편리성을, 23.9%는 취재영상의 무선송출 등 다양한 기능성을, 18.8%는 취재영상의 화질과 안정성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영상기자들의 44.2%는 ENG카메라가 취재시 포커스와 조리개 조작이 간편

해 취재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점을, 18.1%는 취재영상의 화질과 안정적 영상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16.6%는 어깨견착, 무게중심 잡기가 편해 안정적으로 영상취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이는 경제성과 장비호환, 색감의 문제보다 더욱 치열해져 가는 취재경쟁과 급변하는 뉴스현장 속에서 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영상취재를 하고자하는 기자들의 업무적 요구와 무선송출과 뉴스라이브 참여가 늘어나는 뉴스제작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한편, 응답 영상기자의 17.4%가 취재장비로서의 상징성과 역사성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ENG카메라를 주요 취재장비로 선호하는 이유로 꼽아 눈길을 끌었다.

영상기자들의 MNG장비 활용 확대, 장비의 불안정성에 따른 잦은 사고 책임 귀속에 따른 스트레스 호소

이번 설문조사에서 무선망을 이용해 MNG(Mobile News Gathering) 송출장비로 취재현장에서 영상을 송출하고, 현장연결과 취재기자 뉴스라이브를 하는 등의 업무가 확대되면서 많은 영상기자들이 업무강도가 세지고,

이로 인한 업무 스트레스가 커지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응답자의 92.9%는 취재현장에서 영상송출을 위해 MNG장비를 선호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응답자의 66.2%가 MNG장비를 사용한 취재업무 중 발생하는 방송사고의 주원인을 불안정한 MNG장비의 문제로 꼽아 MNG장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장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런 현실에도 실제 현장에서 방송사고가 발생할 경우, 회사에서는 장비문제보다는 현장영상기자의 운영미숙으로 인한 문제로 취급한다는 의견이 44.7%로 조사돼, MNG 운영에 대한 영상기자들의 업무스트레스가 커다는 것이 드러났다.

특히, MNG운용에 있어 영상기자 1인의 운용에 대한 부담감과 스트레스가 커지는 상황에서 지역방송사 등에서 영상기자를 보조하는 오디오맨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지역방송사들의 경우, 경영상의 문제로 오디오맨을 줄이거나, 운전기사가 오디오맨 역할을 대신해 영상기자의 MNG 라이브나 현장연결 시 방송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커지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

영상기자들, ENG카메라의 MNG 기능 결합, MNG 해외이용시 장비사들의 통신 관련 정보 공개 배려

설문조사에 참여한 회원들은 앞으로 주취재장비로 채택하거나 개발될 카메라에 대해 바라는 자유기술에서 MNG송출시스템이 함께 결합되어 별도의 MNG장비 없이 무선통신망을 이용한 송출이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많이 밝혔다. 또한, ENG장비가 좀 더 가볍게 경량화되고, 초고속촬영이나 줌렌즈의 오토포커스 기능이 추가된다면 좋겠다는 의견도 주었다.

MNG장비와 관련해서는 장비의 소형화가 이루어지면 좋겠고, MNG의 해외사용 시 해당국가의 통신사정과 MNG에 설치하는 유심

(USIM)카드와 관련한 정보들을 공개해 현장에서 혼란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업체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리고, MNG장비의 렌트비용이 너무 비싸서 사용빈도에 비해 너무

많은 렌트비용이 들어가므로 협회에서 렌트용 장비를 구매해 전국의 회원사들이 필요한 경우에 빌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의견들도 나왔다. 이번 설문조사는 영상기자협회

원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됐고, ENG관련 응답자 88명, MNG관련 응답자 56명의 응답결과를 갖고 분석했다.

(3면에 이어서)
〈영상기자〉편집팀 종합

용산 대통령실 이전 2개월…기자들 반응은? “도어스테핑으로 언론 접촉 늘었지만…”

보안업 설치 논란·잔디광장 스탠드업때 소통관 직원 동행 원칙 등 취재현장 소통은 ‘빠격’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10일 취임 다음날부터 대통령실 출근길에 출입기자단과 약식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제공: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청사로 집무실을 이전하면서 청와대 춘추관을 떠나야 했던 기자들의 취재 환경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기자들이 가장 먼저 꼽는 변화는 윤 대통령이 매일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약식으로 기자회견을 하는 이른바 ‘도어스테핑(door-stepping)’이다.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강조하면서 특별한 일정이 없는 한 아침마다 대통령이 언론 앞에 직접 얼굴을 내민다는 점에서 역대 대

통령에 비해 대통령의 언론 접촉이 늘어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영상기자들은 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 취재를 위해 아침 8시까지 출근하는 등 풀단 근무가 늘기도 했다.

청와대에서 국방부 청사로 집무실을 이전하면서 리모텔링 일정이 빠듯하게 진행되었고, 춘추관에 비해 공간이 좁다 보니 영상기자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불편함도 있다.

춘추관은 사무공간이 넓어 이를 분리하여 방송 송출 시스템을 설치

했는데, 용산 청사 기자실은 공간이 협소해 영상기자단은 소통관실 쪽에 별도 공간을 요청했다. 하지만 청사 쪽에서 마련해 준 공간에 전기 시설이 없어 공사를 하느라 다시 시간이 지체되었고, 최근에서야 공사가 마무리되어 송출 시스템이 완비됐다. 화장실도 열악해 최근 다시 공사를 했고, 영상기자단이 대통령 순방에서 돌아오면 방송장비들을 보관할 장소도 마땅치 않은 상태다.

모빌리티가 육체라면 소프트웨어는 정신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 미래 모빌리티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104회 ‘이달의 영상기자상’ 심사평

사회적 논의 촉진하고 잊혀져가는 이슈는 재조명

서 태 경 2022 영상기자상심사위원장

제104회 ‘이달의 영상기자상’ 지역뉴스특종 단독부문에는 포항MBC의 박주원 기자가 출품한 <폐양어장 길고양이 학대 살해 사건>을 수상작으로 결정했습니다.

한 통의 제보 전화로 시작된 이 취재는 그 제보 전화를 토대로 끈질기게 추적한 결과, 수사 당국의 인입한 대처로 놓쳤던 옹의 자를 다시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해당 내용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 2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고양이학대법 처벌’ 청원에 동참하며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펫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요즘을 어떻게 진인하고 구분별한 동물학대 사건을 이슈화함으로써 ‘펫산업’의 급성장에 비해 허술했던 동물학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진시킨 시의적절한 보도였습니다.

지역뉴스 탐사기획 보도부문에는 목포MBC의 민정섭 기자가 출품한 <세월호 참사 8주기 기획 보도>를 수상작으로 선정했습니다.

언론사로선 최초로 세월호 조타수를 단독 인터뷰 했습니다. 그 조타수는 사고 당시 조타기 조작 과정에서 느꼈던 강력한 충격 등 세월호 참사에 대해 자신이 갖고 있는 의문점과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사과의 말을 인터뷰를 통해 전했습니다. 더불어 인양된 세월호 내부를 세세히 영상으로 보여 주면서 당시의 상황을 전달해 주고자 노력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어언 8년이 지났음에도 해소되지 않은 의문점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세월만큼 국민들의 관심에서 서서히 잊혀져가고 있다는 게 슬픈 현실입니다. 이 취재는 세월호 참사 8주년을 맞아 우리 모두가 그 아픔을 통해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를 다시 되돌아보게 했습니다. 이 보도가 가진 의미는 그래서 더 크고 소중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통일 보도부문에 SBS 김웅우 기자의 <우크라이나, 트란스니스트리아 최초 현장 취재>를 수상작으로 결정했습니다.



국제통일보도 부문

“우크라이나 취재진 모두 무사히 복귀하길”

SBS 김웅우 영상기자

폴란드 대신 택한 루마니아-몰도바 루트, 국내 언론 최초로 우크라이나 체르니우치 지역 보도 가능케 해

2월 중순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전쟁취재를 위한 첫 출장 팀이 폴란드로 향했다. 그때만 해도 ‘설마 전쟁이 나겠어?’라는 생각이었는데 첫 팀이 도착하고 일주일도 안 되어 러시아가 일방적인 침공을 시작했다. 이후 추가 출장 팀을 꾸리는데 곧바로 자원했다. 치기어린 마음일지도 모르겠지만 영상기자를 업으로 삼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뛸 수 있다는 점인데, 심지어 전쟁 현장이라니 무조건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현실상 바로 우크라이나로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들어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비행기에 올랐다.

국내 취재진들은 다들 폴란드로 모이고 있었지만 우리는 이미 폴란드에 한 팀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접경지역인 루마니아로 향했다. 루마니아와 몰도바(Moldova) 접경지역을 취재하고 여력이 된다면 몰도바와 가까운 오텔사(Odesa) 항구 쪽으로 들어갈 생각이었다. 그렇게 도착한 루마니아 접경지역은 생각보다 차분한 분위기였다. 가까운 지역인 우크라이나 체르니우치(Czernowiz)가 우크라이나 내에서 전쟁의 영향력이 아직까지는 미치는 지역이 아니라서 각국의 구호물품들이 폴란드보다는 루마니아를 통해 보내지고 있었다. 그래서 곧장 취재기자와 논의해 어느 정도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지 외교부에 특별입국허가를 요청했고 약 2주 뒤 루마니아 시메트(Siret)로 접해있는 우크라이나 체르니우치 지역에 한하여 입국이 가능한 특별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그사이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우리는 새로운 취재 포인트를 모색했다. 트란스니스트리아(Transnistria)라는 우크라이나의 돈바스(Donbas) 같은 천리 지역의 몰도바에도 존재했는데 그곳은 우리나라 법으로는 들어가는 게 전혀 문제가 없었다. 다만 국제법으로는 몰도바에 속해있지만 자치정부부를 꾸리고 화해와 대통령, 국경까지 따로 존재하는 곳이라 입국이 가능할지 속단할 수 없었다. 심지어 전쟁이 발발하고 더 폐쇄적인 곳으로 변해 취재진은 입국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취재진임을 밝히지 않고 들어가서 취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논의 끝에, 위험할 수도 있지만 천리 지역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취재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관광객으로 위장해 취재를 시작했다. 장비도 최소화해 고프로(GoPro)와 휴대폰만 지닌 채 다행히 국경은 통과하고 무난하게 취재를 하는 도중 마지막에 사복경찰에게 걸리고 말았다. 계속되는 추궁에 그냥 유튜브바라고 얼



국내 여권법의 제약과 외교부의 취재 지역 제한으로 인해 국내 언론사는 우크라이나 전쟁 취재에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SBS가 국내 언론으로는 KBS와 함께 최초로 우크라이나를 현장 취재했습니다. 비록 제한된 지역과 시간에도 영상기자를 비롯한 취재진이 다양한 현장과 인터뷰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의 실상을 전달하려고 노력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산MBC가 출품한 <세게이트>는 여러 면에서 훌륭한 작품이었습니다.

현재 부산이 처한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가택도 신공향을 건설하여 물류 산업의 혁신과 성장 모멘텀을 이뤄야 한다는 점을 잘 강조했다습니다. 영상 기자가 직접 기획, 촬영하였고 심사위원 모두 인정할 만큼 여러 면에서 뛰어난 작품이었습니다. 그러나 가택도 신공향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 자칫 기사가 홍보로 보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기자의 시선은 날카롭고 사안의 판단이 정확해야 하는데 문제점에 대한 언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로 인해 수상작에는 오르지 못한 점이 크게 아쉬웠습니다.

지역뉴스탐사기획보도부문

세월호 조타수 단독인터뷰 등 세월호 참사 8주기 기획보도

목포MBC 민정섭 영상기자

새내기 기자가 10년차 중견기자가 되어서도 멈출 수 없는 ‘세월호 참사 취재’

2014년 4월 16일 인천항에서 출발한 세월호는 304명의 희생자를 남기고 진도 동거차도 앞바다에서 가라앉았습니다. 그 후 8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침몰 원인은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매년 4월이면 쏟아지던 각 매체들의 보도량은 이제 확연하게 줄어났습니다. 목포MBC는 세월호 참사 당일부터 취재를 이어왔던 만큼 지금이야말로 참사 당일의 상황과 참사의 증거인 선체, 참사의 당사자들에 더욱 집중해야 할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8년 동안 언론 앞에 나선 적 없었던 ‘세월호’ 선원 중 조타수를 어렵게 만나고 선체 곳곳을 기록하며 새로운 증거를 찾아보려 노력한 이유였습니다.

저는 2013년 5월에 목포MBC 영상기자로 입사하였습니다. ‘새내기’ 타이틀도 떼지 못하던 만 1년차가 되어갈 무렵 진도 동거차도 앞바다에 ENG카메라를 들고 투입되었습니다. 진도 동거차도 침몰현장 및 상하이생비지 인양 과정, 세월호 청문회, 동거차도 산 정상 유가족 텐트, 네덜란드 마틴사 실험 동행 취재, 목포신항 세월호 거처 등을 취재해 온 제게 주변에서는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이 ‘세월호 참사’를 담아낸 영상기자라고 얘기합니다. 목포MBC의 1년차 새내기 영상기자는 ‘세월호’를 영상으로 기록하면서 어느새 10년차의 중견급 영상기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8주기 기획보도는 세월호가 기울던 시각, 조타실에서 조타기를 잡았던 조타수 조 씨를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처벌을 받은 15명의 선원들은 재판과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청문회 외에는 단 한 차례도 언론 앞에 나선 적이 없었습니다. 수소문과 설득을 거쳐 어렵게 만난 조타수 조 씨는 참사 당시 조타실 안팎의 기억과 참사 이후 선원들이 지내온 삶, 희생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사과 등 많은 이야기를 털어냈습니다. 27년 경력의 조타수였던 그는 참사 당시 배의 균형을 잡는 날개인 스테빌라이저 부근에서 뭔가가 잡아당기는 것과 같은 충격을 느꼈다고 진술하기



지역뉴스특종 단독부문

폐양어장 길고양이 학대 사건을 취재하며

포항MBC 박주원 영상기자

“포항에서 폐양어장에 길고양이 수십 마리를 가둬 놓고 학대, 살해하는 남성을 추적 중이다.”

3월 20일 늦은 밤, 동물보호단체로부터 걸려온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학대 내용은 매우 잔인했습니다. 동행 취재를 결정했습니다. 새벽에 도착한 폐양어장의 모습은 참담했습니다. 가스버너와 칼이 놓여 있고 곳곳에 혈흔과 함께 절단된 고양이 사체가 널려 있었습니다.

학대 용의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확보한 단서들을 바탕으로 용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집과 가게 등을 찾아갔습니다. 여러 차례 허탕을 친 끝에 마침내 용의자를 만나 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용의자는 일부 학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죽인 적은 없다고 계속 부인했습니다. 한 시간 넘는 설전 끝에 용의자는 결국 고양이 살해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학대 행위의 이유가 ‘호기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사당국이 동물 학대 범죄에 인입하게 대용한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보도 전날, 시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내가 죽인 건 아니다.”라는 용의자의 말만 듣고 어떠한 조사도 없이 돌려보냈습니다. 문제는 이미 이런 문제들이 여러 차례 지적돼 매뉴얼까지 만들어진 상태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취재 결과 확인된 매뉴얼에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명시돼 있었지만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용의자가 취재진에게 일부 혐의를 인정한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야 뒤늦게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후속 취재를 통해 구체적인 학대의 정황을 밝혔습니다. 한 마리만 죽었다고 주장한 용의자는 최소 18마리의 고양이를 살해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용의자의 고양이 추가 학대 정황과 제보자에 대한 협박 사실도 추가로 확인해 연속 보도했습니다. 결국 수사 한 달여 만에 경찰이 용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동물 학대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용의자는 구속 송치됐습니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사안이 중대하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도 했습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탑승 선원의 첫 증언과 첫 사고 처음으로 입을 연 조타수에 대한 인터넷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계열사인 광주MBC에서 업로드한 해당 리포트 영상은 조회수 120만회를 넘겼고, 5천 개 이상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국민들의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선원들의 당시 행동에 대한 질타, 정부의 허술한 구조와 진상규명의 완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들이었습니다. 특히 저희를 놀라게 한 것은 유가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사실 참사를 겪은 당사자이기도 하면서 유가족들에게는 가해자이기도 한 세월호 선원들의 목소리를 낱것 그대로 담아내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도 이후 연락이 닿은 몇몇 유가족들은 “선원들에게 들은 첫 사과였다”는 감상을 전했습니다. 또 여전히 세월호 참사의 진상은 온전히 규명되지 않았음을 알리고 관심을 촉구하는 역할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세월의 흐름 속에 잊혀지지 않도록, 또,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찾아 지난 8년간 끈질기게 취재하고 방송해온 목포MBC의 구성원으로서 지금까지의 노력과 지역언론으로서의 역할을 잊지 않고 카메라에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8년 동안 같이 세월호 취재를 하고 있는 동료 취재기자인 김진선 기자에게도 항상 고생하고 있고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8년간 함께 고생한 동료분들과 무엇보다 옆에서 묵묵히 응원해주는 아내에게도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축박한 기자실 이전 문제점 드러나

송출장비 이전 설치에 시간 걸려 춘추관서 취재 원본영상 송출

한 영상기자는 “용산 청사에 송출 장비를 못 들여와 한동안 춘추관 송출 시스템에 풀단별로 기자 1~2명이 가서 송신 근무를 서야 해서 추가 인력이 필요했다.”며 “그렇게 받은 영상도 인터넷망으로 보낸 것이어서 원본은 따로 녹화해 파일을 외장하드에 저장해 각 방송사에 보내는 작업을 한 달 넘게 해 왔다.”고 토로했다.

대통령과 같은 건물을 사용하다 보니, 축박한 기자실 이전으로 인해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용산 청사 1층에는 기자실이, 2층에는 대통령 집무실이 있다. 하지만 기자들은 1층 정문을 이용할 수 없고, 지하1층으로 다녀야 한다. 들어올 때마다 보안검색대도 통과해야 한다.

한 출입기자는 “기자들에게 청사 출입을 위해 보안업을 깔라고 했다가 반발하니까 기자 출입증이 있으면 보안업이 없어도 통과되는 것으로 정리됐다.”며 “청사 앞 잔디



▲지난 5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청사 1층 기자실을 방문한 뒤 오픈브라썬룸에서 기자들에게 즉석연설을 진행하고 있다. (대통령실)이 출입기자들에게 제공한 사진)

광장에서 스탠드업을 할 때도 소통관 직원이 동행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는데, 늘 함께 나오는 건 아니지만 기자가 대통령실 관계자 앞에서 리포트 촬영을 하는 게 많이 되느냐.”고 말했다.

대통령 일정 영상취재 공개 없이 전속촬영기사가 영상제공하러 다닌다고도

그런가 하면 영상기자단에 대통령 일정을 공개하지 않은 채 전속 촬영기사가 찍은 영상을 준다고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를 두고

기자들 사이에서는 “앞에선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도어스테핑을 하면서 뒤에서는 명확한 기준도 없이 영상취재를 못 하게 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매일신문 이호준 기자는 지난 23일자 데스크칼럼 ‘대통령의 소통, 대통령실의 소통’에서 “(윤 대통령) 당선인 시절 기자실을 청사 1층에 두고 자주 들러 소통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지만 국민소통관실(옛 춘추관)도 왕래할 수 없고, 소통관장이나 홍보수석과의 정례 모임이 없다며 “대통령실도 소통에 좀 더 분발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안영숙 기자 cat1006@naver.com

YTN, 국회 지상파 영상기자풀(POOL) 단에서 제외

2018년 ‘국회풀단운영안’ 합의 이후 3회 위반…풀단 전체투표로 결정 협회·지상파풀단 소속 5개사 보직자 대표 ‘풀(pool)취재 원칙강화’ 합의

KBS, MBC, SBS, OBS, MBN, YTN 등 6개 방송사 영상기자로 구성된 국회 지상파 영상기자풀(POOL)이 지난 22일 YTN이 제외됐다.

국회 지상파 영상 풀단은 지난 22일~23일 YTN을 제외한 풀기자 전체 투표를 실시해 재적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YTN을 지상파 영상 풀단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YTN이 국회 지상파 영상기자 풀(POOL)단에서 배제된 데는 지난 2018년 출입기자들과 각 사 데스크들이 함께 제정한 ‘국회풀단운영안’을 잇따라 위반했기 때문이다.

YTN은 지난 5월 12일 지상파 영상 풀단에 사전 통보 없이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출마 선언 및 현장 방문 일정에 독자적인 취재팀을 보냈다. 하지만, 타사들도 이 취재를 풀단의 공동일정으로 요청해 현장에 갔지만, 오시장이 YTN과의 인터뷰를 풀단과의 인터뷰로 생각해 풀취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하루 뒤인 13일에도 YTN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참석하는 ‘인천 청년 간담회-유정복, 인하대를 만나다’ 일정에 독자적인 취재팀을 보내면서 풀단에 관련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국회 지상파 운영 규약 3항에 따르면 ‘풀단의 참여사는 풀단의 순서와 업무에 훼손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풀단에 계획을 통보, 조율하고, 자율적인 사별 제재, 기획취재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국회 지상파 영상 풀단은 YTN이 풀 취재 현장에 자사의 독자 취재팀을 사전공지 없이 보내 풀팀의

공동취재를 방해했다고 판단하고, 보도국장 명의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했다. 풀단 징계는 규약을 위반할 때마다 풀단 배제 기간이 처음은 1주, 두 번째는 2주, 세 번째는 4주로 늘어나는데, YTN은 2018년부터 이미 두 차례 징계를 받아 이번에도 징계를 받으면 한 달 동안 국회에 출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풀단은 당사가 지방선거 기간임을 감안해 보도국장이나 영상국장 사과문으로 대체하라고 했지만 YTN은 이를 거부했다. 결국 국회 지상파 영상 풀단은 YTN을 한 달 동안 풀단에서 배제하기로 하고, YTN의 풀단 복귀 여부는 전체 풀단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후 풀단은 징계 만료를 앞두고 지난 15일 YTN에 “반복적인 규약 위반에도 YTN은 사과 대신 규약의 부적합성을 제기했다.”며 “풀단 규약을 인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인지, 매체 특성에 맞는 선택을 할 것인지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YTN은 21일 “규약의 부적합성의 문제 제기에 다른 의도는 없으며 각사가 개정안 규약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있음을 제기한 것”이라며 “지난 5월 YTN이 개별 취재 상황을 공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선 이 자리를 빌려 다시금 사과드리며 앞으로 모든 국회 및 정치 관련 일정에 있어 세심함을 더하겠다.”는 입장문을 보내왔다.

풀단은 YTN의 입장문을 기자단 전체에 회람한 뒤 투표를 실시했으며, 지난 23일 YTN에 풀단 배제를 통보한 상태다.

한편, 한국영상기자협회와 1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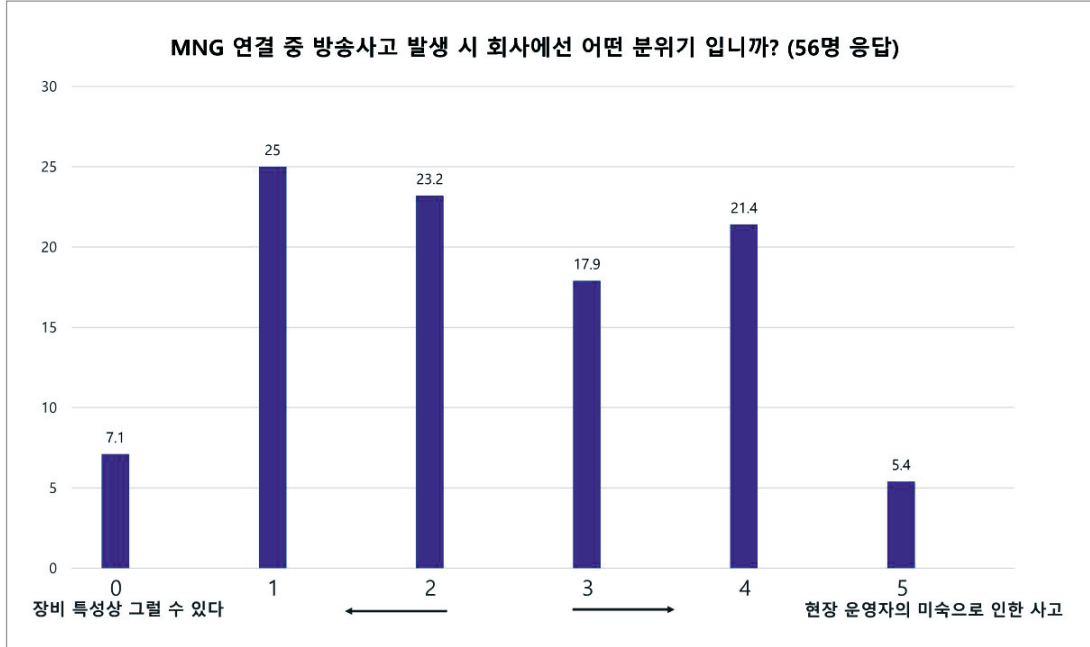
단에 참여한 5개 방송사 보직자 대표들은 지난 16일 긴급회의를 열어 풀(pool)취재·풀단 운영과 관련한 원칙을 재확인했다. 지난 몇 년 동안 일선 취재현장에서 코리아풀(KOREA POOL)과 같은 상황이 아님에도 취재편의를 위해 비회원사와의 풀(POOL)취재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풀취재원칙을 강화해야 한다는 회원들의 문제제기가 꾸준히 있어왔다. 또한, 영상보도가이드라인 제정과 회원 교육과정에 함께한 언론학자, 언론법 전문가들은 취재 현장에서 ‘영상보도가이드라인’과 여러 준칙들이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이를 위반한 회원이나 회원사에 대한 엄정한 제재가 시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혀왔다. 이에 따라 협회는 6개월간의 운영위원회 토론회와 의결을 거쳐 지난해 10월 ‘취재현장의 무너진 공동취재 원칙을 바로 세우자!’는 내부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5개사 보직자 대표는 긴급회의에서 취재현장과 출입처에서 이뤄지는 풀 취재와 풀단은 2008년 제정된 ‘방송뉴스 영상취재풀단 운영에 관한 준칙’에 의거해 협회원과 회원사로 구성된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또, 풀취재 원칙, 포도라인 운영 준칙, 개별 풀단의 운영 규약을 위반한 회원과 회원사에 대해서는 풀취재·풀단 참여자들이 각각의 준칙과 규약에 의거해 제재하기로 했다. 영상기자협회는 회원사의 확대, 뉴스제작 환경의 변화에 맞춰 풀취재, 포도라인 운영 준칙의 개정을 위한 개선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안영숙 기자 cat1006@naver.com

UHD카메라에 대한 정보취득, 교육경험 29.9% 밖에

7월 협회연수, 카메라, MNG장비 관련 연구팀 결과 발표예정, 장비사들 직접 정보제공



(1면에 이어서)

이렇게 UHD방송용 ENG카메라에 대한 필요성과 도입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사내외에서 제공받거나 교육받은 경험이 29.9%, 사용해본 경험이 절반에 못 미치는 42.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협회는 이런 회원들의 UHD취재장비에 대한 관심과 MNG관련 취재업무증가와 그에 따른 회원들의 업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오는 7월 7~8일, 7월 13~15일 각 각 부산에서 열리는 전국 회원사 데스크-지부장연수와 전국회원 연수에서는 "ENG카메라의 미래와 MNG송출장비의 발전" 세션을 통해, 영상취재장비를 담당하고 있는 각 방송사의 영상기자들이 지난 한 달간 ENG연

구팀과 MNG연구팀을 구성해 벌여온 그동안의 연구작업의 결과들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리고, UHD 영상장비 채택을 위해 취재장비의 사용자로서 고려하고 바라는 점들, MNG업무확대에 따른 업무상의 어려움과개선점들을 논의하고, 취재장비로서 ENG카메라와 MNG장비의 발전방향도 함께 이야기해볼 예정이다. 또, 소니, 파나소닉, 캐논, TV-U, LIVE-U 등의 장비사에서 직접 자신들의 장비개발방향과 특징을 설명하고, 참가자들이 직접 장비들을 테스트해볼 수 있는 시연회도 진행한다. 협회는 UHD방송전환을 앞두고 영상기자 업무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얻고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영상기자>편집팀 종합



제105회 이달의 영상기자상 작품 공모

한국영상기자협회 회원사를 통하여 방송된 뉴스와 보도프로그램 중에서 투철한 기자정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보도영상 발전에 공헌한 기사를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습니다. 한 컷 한 컷의 영상 속에 오늘을 역사로 담고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회원 여러분의 기자정신과 영상전문가로서의 뜻과 열정이 담긴 보도영상작품을 <이달의 영상기자상>에 공모해 주세요.

■공모대상부서(정회원엔 한함)

▲뉴스특종단독부서 ▲지역뉴스특종단독부서

▲뉴스탐사기획보도부서 ▲지역뉴스탐사기획보도부서

▲보도특집다큐부서 ▲알파보도부서 ▲새로운시선 부서

▲인연-노동보도부서 ▲국제, 통일보도부서 ▲환경보도부서

▲문화-스포츠보도부서

■출품대상

2022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회원사를 통하여 방송된 보도영상물 또는 인터넷으로 송출된 작품

■제출기간

2022년 7월 1일(금) ~ 7월 15일(금) 오후 6시까지(출품기간 및 시간임수)

■심사: 2022년 7월 22일(금) 오후 4시

■심사 결과 발표: 2022년 7월 22일(금) 오후 9시

■제출서류 및 방법: 유의사항은 한국영상기자협회홈페이지 참조 (www.jnews.or.kr)

■문의: 한국영상기자협회 사무처(02)3219-6476

[2022 광주민주포럼 특별 세션]

“광주민주화운동, 후세에 생생한 역사로 전해지기 위해 5.18 보도영상 체계화 필요”

현존하는 5.18 보도영상자료, 구체적 취재 정보 누락 ‘심각’

“방송사·5.18 유관기관, 5.18 당시 취재영상물에 대한 조사·분석·체계화 미흡”

현재 국내 방송사와 5.18진상규명 단체, 기록물 관리단체들이 소장하고 있는 5.18 관련 영상 자료들이 당시의 구체적 정보들을 상실한 채 기록·보관·활용되고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영상기자협회(회장 나준영)와 5.18 기념재단이 공동 기획한 ‘5.18당시 보도영상자료의 체계화와 영상기자 활동 규명’을 위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모두 5.18 관련 영상 자료를 자료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022 광주민주포럼의 특별 세션으로 마련된 이번 세미나는 지난 5월 2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KBS 김형석 PD는 지난해 다큐인사이트 ‘영상 아카이브 오월의 기록’을 제작하면서 관련 영상 자료의 원본과 촬영자를 찾는 과정을 공개했다.

김 PD는 체포된 시위대를 태운 버스에 어린이가 타고 있는 장면에 대해 옛 전남도청북원추진단 관계자가 이 영상의 의미를 확인해 줬다고 소개하며 “방송 제작자는 영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영상물을 자료화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협업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김 PD는 5.18 영상자료 관리와 관련해 △각 방송사가 소장한 5.18민주화운동 관련 영상 목록을 공개하고 △전문가와 방송사 협업을 통해 영상 전문을 조사하는 한편 △해외 방송사가 보유하고 있는 관련 영상을 조사해 저작권 문제를 해결해 △공적 자산으로써 5.18 영상을 방송사 뿐만 아니라 일반 시청자와 국민들에게도 공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준영 영상기자협회장은 지난해 힌츠페터국제보도상 공모상 수상자를 선정하면서 5.18 초기 상황을 담은 영상을 취재·보도한 기자를 찾는 과정을 언급하며 부실한 영상 관리 실태를 꼬집었다.

나 회장은 “국내 방송사들은 5.18 당시 자사의 영상기자들이 취제한 영상은 물론 1987년 민주화 이후 외신기자들이 취제한 영상들까지 확보했지만, 외신 영상은 물론 자사의 취재영상까지도 취재자, 취재 일자, 취재 장소, 취재 상황 등 중요한 자료 정보를 누락한 채 보관해 왔다.”며 “뉴스 아이템이나 프로그램에 필요한 서사 중심으로 영상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다 보니 제작자가 원하는 서사적 흐름에 맞춰 영상을 배치시킴으로써 영상의 의미를 변화시키고 같은 영상의 중복 자



▲독일 ARD방송도쿄특파원 힌츠페터영상기자가 1980년 5월 20일 오후 광주에서 취제한 영상캡처

료화로 해당 영상이 본래 담고 있는 시간, 장소, 사건에 대한 영상정보들을 심각하게 왜곡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영상 자료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은 5.18 관련 기관이나 단체들도 마찬가지다. 나 회장은 2011년 5.18민주화운동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될 당시 취재영상에 대한 등재가 아예 고려되지 않은 점을 들어 “5.18 진상규명을 담당하거나 기록물들을 관리해 나가는 단체나 기관들 역시 영상물에 대한 조사, 분석과 체계화를 위한 노력이 방송사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나 회장은 “5.18이 이제 50주년을 향해 가는 상황에서 미래세대가 5.18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KBS, MBC 등의 방송사, 5.18 진상규명 기관과 단체, 기록물 관리단체들은 5.18 현장을 취제한 영상기자들의 활동을 규명하고, 5.18 영상자료들을 체계적으로 관리·분석·연구하는 작업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산주체·소장지에서 벗어나 사건 발생 시간 경과·공간에 따라 분류해야” 제안도
노영기 조선대학교 기초교육대학 교수도 “5.18항쟁 보도영상 자료의 아카이브

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동의했다. 노 교수는 지금까지 보도영상자료의 분류에 대해 생산 주체나 소장처(소장인)에 따른 분류보다는 “사건 발생 시간의 경과와 공간에 따라 분류하는 게 자료를 가장 알기 쉽고 활용하기 편리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노 교수는 “KBS ‘오월의 기록’에서 시도했던 것처럼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 시간과 장소, 인물을 분류한 뒤에 보도영상 자료를 배열하는 방안”을 제시한 뒤 “일자별로 사건의 발생 장소를 검토할 수 있다면 의외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상 자료를 분석하고 진상규명에 활용한다면 문서나 구술 자료에서 찾기 못한 의외의 사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노 교수의 생각이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재의 5·18기념재단 연구위원은 언론사가 보유한 영상 자료가 지금까지 정리가 안 된 데 대해 △영상기술이 전문적이어서 일반인이 접근하기에 한계가 있고 △생산자가 소수여서 정보기관의 통제가 쉬웠을 것이며 △영상 자료가 다른 자료에 비해 철저하게 정권의 통제 아래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 위원은 “교육·홍보·문화 콘텐츠로써 영상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원본에 대한 규명과 체계화를 기록관 차원에서 좀 더 깊이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1980년 5월 19일 유영길 미국CBS-TV 서울지역 영상기자가 광주금남로에서 취제한 영상은 지난해 힌츠페터국제보도상 오월광주상 공적조사전까지 5월18일 촬영된 것으로 잘못 알려졌고, 취재자가 누구인지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채, 방송사의 자료로 보관되어 왔다. 1989년 방송된 KBS다큐멘터리 <광주를 말한다> 화면 캡처




▲한국영상기자협회와 5.18기념재단이 2022광주민주포럼 기간, 5월 20일 개최한 <5.18당시 보도영상의 체계화와 영상기자활동 규명을 위한 세미나> 장면

강조했다. 최용주 5.18진상규명위원회 과장은 “최근 위원회에서 5.18 당시의 영상자료를 시간별로 나열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자료를 관점별로 분류해 보니 계엄군의 관점에서 시민을 바라보는 자료가 시민의 관점에서 계엄군을 바라보는 자료보다 더

많았다.”며 “영상자료가 갖는 의미를 좀 더 비판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도 진상규명과 관련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인화 5.18민주화운동기록관 관장은 “영상기록물은 (영상 소장처인) 방송사와의 관계, 해외에 있는 영상 파일의 저작권

등 제한 조건이 많다.”며 “하지만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쉽고 빠르게 기록물을 볼 수 있는 체계가 정비되어야 하는 만큼 통합DB 시스템이 구축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안경숙 기자 cat1006@naver.com



한국영상기자협회
Korea Video Journalist Association

2022년 한국영상기자협회

데스크급-지부(회)장 연수

일 시: 2022년 7월 7일(목) ~ 8일 (금) (1박 2일)

장 소: 부산 해운대 펠릭스 by STX호텔

7월 7일 목요일 (1일자)		
등록 및 숙소 배정	11:30 ~ 12:40	
[함께 모색하는 영상기자의 발전]		- 협회 현황 공유 및 참가자 의견 교류회
<ENG카메라의 미래와 MNG장비의 발전> 1 (협회원 연구팀 연구결과 발표)	13:00 ~ 16:00	- ENG연구팀 (MBC권혁용, MBC충북 김병수, SBS김남성) 대표자 발표 - MNG연구팀(MBN이우진, OBS이영석, KBS박장빈) 대표자 발표
[영상보도가이드라인 3년, 보도영상의 변화]	16:00 ~ 18:00	- <영상보도가이드라인> 저자 이승선 한국 언론법학 회장이 보는 3년 간의 뉴스 영상의 변화 - 언론 중재, 소송에 잦은 소재가 되는 문제 - 데스크가 갈등하게 되는 영상 취재, 보도 시 문제들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함께 모색하는 영상기자의 발전]	18:00 ~ 22:00	- 해운대에서 함께하는 저녁 토크, 호프타임
7월 8일 금요일 (2일자)		
함께하는 문텐로드 출발길 산책	07:00 ~ 08:30	- 희망자에 한해
[ENG카메라의 미래와 MNG의 발전] 2	09:30 ~ 12:00	- 장비사들이 이야기하는 ENG카메라의 미래 (소니, 파나소닉, 캐논)
	13:00 ~ 15:00	- 장비사들이 이야기하는 MNG의 발전 (TVU, LiveU)
종료	15:00 ~ 15:30	

주최 한국영상기자협회

|

후원 한국전파진흥협회

‘KOB2022’ , 3년 만에 다시 만나는 국내 최대 방송, 영상산업 전시회

‘Media Waves of Innovation’이라는 주제로 제30회 국제 방송·미디어·음향·조명 전시회《KOB2022》가 6월 29일(수) 개막행사를 시작으로 7월 1일(금)까지 3일간 삼성동코엑스(COEX) 전시장 C.D홀 및 컨퍼런스 센터에서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제전시협회로부터 국제인증받은 방송·통신 분야 국내 유일의 전문전시회로서 성장해 온 KOB2022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년 간 중단되었다가 3년 만에 개최된다. UHD 방송 전환 일정과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방송 통신 융합에 따른 미디어 제작환경의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영상기자를 비롯한 방송 현업인들은 이번 KOB2022가 무엇을 보여줄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이에 KOB2022를 주최하는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김성곤 교육실장이 KOB2022를 소개하는 글을 보내왔다.

(편집자주)

김 성 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교육실장

■ KOB2022 전시회, OTT 제작환경, 1인 미디어 제작, 모바일, 메타버스 등 신개념 방송, 영상산업과 음향, 조명산업의 첨단 기술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기회 제공

3년 만에 열리는 이번 ‘KOB2022’는 세계 각국의 우수한 방송, 미디어, 음향, 조명 관련 장비들을 한자리에 모아 전시·소개함으로써 문화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신개념 방송, 영상산업과 음향, 조명산업의 첨단화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다. 미디어 산업에 뛰어들어 빅테크와 글로벌 OTT로 인한 제작환경 변화, 세대별 미디어 사용 형태 변화, 1인 미디어 제작 활성화 등 변화의 흐름에 대처할 수 있는 경쟁력과 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 Mobile, Smart Media, 디스플레이, LED, 콘텐츠, 메타버스, XR 등 새로운 전시 품목을 선보이는 것은 물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방송, 미디어 산업의 시장규모가 커져 차별화된 경쟁력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 KOB2022 전시회는 차세대 성장산업으로서의 비전을 제시한다.

주요 전시품으로는 최첨단 방송·영상 장비 분야의 4K·8K, UHD, 3D, Smart TV, Mobile TV, 디지털 콘텐츠, 카메라, VTR, 편집 관련 시스템, 송출·송신 관련 기기, 영상편집 기기, 문자발생기, CATV 시스템, 인터넷·위성방송 관련 기기, 디스플레이, LED 등을 비롯하여 Pro Audio, 마이크, 헤드폰, 콘솔, 믹서, 악기 등 음향 관련 기기와 조명·무대 관련 장비 등 6백여 기종 1만여 점을 전시 소개함으로써 최신 제품의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인 미디어 플랫폼이 급성장하고 모바일 콘텐츠의 소비가 증가하는 트렌드에 발맞추어 유명 크리에이터를 초대하여 1인 방송 미디어 콘텐츠 제작 노하우와 전시장 내에 특별관을 설치하여 1인 방송 관련 장비들도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Panasonic, Canon, ARRI, 고일, 동양디지털, 비주얼리서치, 블랙매직디자인, 삼아GVC, 산일텍, 한국화웨이 등 방송·영상 관련 업체와 다산에스알, 디라지, 사운즈솔루션, 삼아프로사운드, Yamaha, 캐빅, 세기전자 등 음향업체를 비롯하여 알파라이트, 현대포맥스, 에그린 등 조명 관련 업체를 포함한 세계 우수 업체들이 대거 참가한다.

■ 월드 미디어 포럼 차세대 TV 서비스와 미래 미디어 산업 전망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사단법인 방송기술교육원이 주최·주관하는 KOB2022 World Media Forum (KOB2022 WMF)은 글로벌 미디어 시장의 비전을 전 세계가 공유하기 위한 국제 포럼이며, 아시아 최대 글로벌 미디어 포럼을 지향한다. 또한 21세기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서 새로운 지식 및 기술 공유를 통해 세계 미디어 산업의 균형 잡힌 성장과 번영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매년 세계 최고의 미디어 석학 및 글로벌 기업의 CEO, 기술 전문가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 방향을 예측하는 한편 미디어 위기를 진단하고 대응 전략을 모색한다.

KOB2022 개막일인 6월 29일 오후에 개최되는 월드 미디어 포럼은 ‘2022, What is now and What is Next with TV Service’를 주제로 차세대 TV의 해와 및 국내 서비스 현황과 미래를 분석하고, 전 세계 다양한 분야의 미디어 전문가들과 함께 미래 미디어 산



업에 대해 전망한다. 북미의 지상파 ATSC 3.0 기술 표준으로, 표준을 적용한 차세대 방송을 새로운 시대의 TV라는 의미의 ‘NEXTGEN TV’라고 명명하고 신규 서비스를 개발하고 시청자 위주의 방송 서비스를 준비하고 시행하는 내용을 알아보고, 유럽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5G Broadcasting’을 통한 방송·멀티캐스트 비즈니스를 알아본다. 북미 지상파를 이끄는 싱클레어 방송 그룹의 델버트 알 파크스(Delbert R. Parks) 부사장(최고기술 책임자)과 마크 에이 에잇켄(Mark A. Aitken) 기술담당 수석 부사장(ONE 미디어 사장), 글로벌 기업인 로데슈바르츠(Rohde & Schwarz)의 모하메드 아지즈 타가(Mohamed Aziz Taga) 사업전략 본부장, 이승호 MBC 기술정보사업파트장이 강연에 나선다. 이승호 파트장은 ‘국내 ATSC 3.0 서비스 모델과 현황’을 주제로 우리나라의 차세대 방송 현황에 대해 발표하고, 이어 지난 4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NAB에서 관심을 받은 MBC의 RTK 서비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 지상파 UHD 방송, 4K/8K 제작, AI 기반 콘텐츠 제작, AR/VR/XR을 활용한 실감미디어 제작 현황 등을 주제로 한 컨퍼런스도 볼거리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와 한국이엔엑스가 주최하는 ‘국제방송기술 컨퍼런스’는 6월 30일, 7월 1일 양일간 12개 세션에서 약 40여 회의 강의를 COEX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하여 지상파 UHD 방송, 4K/8K 제작, 스마트 미디어, AI 기반 콘텐츠 제작, AR/VR/XR을 활용한 실감미디어 제작 현황, OTT를 비롯한 국내외 미디어 동향과 같은 주요 방송기술 및 정책 등 방송산업 전반에 관련된 이슈를 주제로 다룬다.

첫날인 6월 30일은 ‘4차 산업혁명과 DX’, ‘실감미디어 제작’, ‘XR 조명’, ‘최신 콘텐츠 제작 기술 동향’, ‘New 플랫폼 전략’, ‘미디어 클라우드’의 세션으로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화제의 드라마인 <웃소매 붉은 굿동> 제작진이 전하는 영상 미학 이야기와 크래프톤 이민호 글로벌 E-SPORTS 총괄의 <애크그라운드>의 펍지 글로벌 인비테이셔널 제작 후기, 방송조명 연합회 소속의 조명감독들이 전하는 XR환경의 조명제어 등의 강제가 준비되어 있다.

둘째날인 7월 1일에는 ‘디지털 미디어 전략’, ‘오디오 플랫폼과 QC’, ‘AI 기반 미디어’, ‘방송통신 컨버전스 동향’, ‘웹3.0과 미디어’의 세션으로 이상우 콘텐츠웨이브 본부장의 OTT 서비스 동향&전략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원의 안석기 선임연구원의 5G Broadcasting의 현재와 미래, AI와 딥러닝 기반의 방송시스템 강화들을 눈여겨보면 방송현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외에도 음향 기술 관련 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전시회 참가자들을 만나기 위해 준비 중이다.

뉴스VIEW

역사적 상상력의 원재료, 5.18 보도영상의 가치

이 재 의 (5.18기념재단 연구위원,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저자)



한국 사회 ‘민주화의 원재료’가 된 5.18 보도영상의 철저한 고증·복원·정리 작업 이뤄져야

진상규명 이슈가 떠오를 때마다, 혹은 매년 돌아오는 5.18기념행사에서 당시 현장을 담은 영상들이 다양한 서사적 맥락 속에 재편집되어 사용됐다. 한 마디로 영상기자들이 촬영한 5.18관련 보도영상들은 우리 사회 ‘민주화의 원재료’로 작용했던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재 남아있는 원본 영상들은 몇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5.18 당시 영상취재자의 의도에 따른 상반된 시각 차이, 그리고 보존방법 및 사용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이 바로 그것이다.

첫째, 1980년도만 해도 방송용 카메라 촬영은 특징인 몇몇 사람에게만 허용된 고급 기술이었다. 당시 광주 현장에서 취재활동을 했던 사람들은 국내 TV와 외신 TV 영상기자들, 그리고 계엄당국이 홍보와 채증 목적으로 현장에 투입했던 대한뉴스의 촬영감독들이었다. 이들 가운데 외신이나 방송기자들이 생산한 영상들은 비교적 사건의 본질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취재한 영상들이다. 하지만 정보기관의 통제 아래 촬영한 영상은 사건을 왜곡시키려는 의도에서 생산됐다. 후자는 오늘날에도 5.18 왜곡을 목적으로 한 유튜브 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둘째, 5.18 이후 영상기자들이 찍은 보도영상의 보존 문제다. 영상 촬영자가 소수였기 때문에 정보기관의 통제가 용이했다. 5.18 직후 사진기자들이 찍은 현장 필름을 보안사가 나서서 강제로 탈취해간 과정은 어느 정도 알려진 사실이다. 이에 반해 영상자료가 어떻게 통제, 보존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관련자들이 증언하기를 꺼리거나 이에 침묵하는 실정이다. 극소수 일부 증언에 따르면 영상 필름도 사진처럼 5.18 직후 보안사가 강제 수거해간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찌된 일인지 ‘계

엄군의 발포와 관련된 원본 영상’은 모조리 자취를 감춰버렸다. 1980년 5월 21일 오후 1시경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 상황을 담은 영상은 단 한 컷도 찾을 수 없다. 당시 수많은 내외신 기자들이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는 촬영했을 법한데 남아있는 원본 영상이 전혀 없는 것이다.

셋째, 보도영상의 활용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도 간과할 수 없다. 1989년 초 MBC가 방영한 ‘어머니의 노래’와 KBS의 ‘광주는 말한다’는 5.18과 관련해 군부정권의 시각을 벗어난 최초의 방송으로 큰 관심을 끌었다. 5.18 때 영상을 오리지널 소스로 이용하여 새로운 5.18 서사를 만들어냈던 것이다.

그런데 이때 사용한 원본 영상들조차 엄밀한 의미에서 5.18 당시의 팩트를 정확하게 반영했다고 볼 수 없다. 예를 들면 5월 19일 오전 미국 CBS 촬영기자 유영길이가 찍은 금남로 집압 장면이 최초의 영상인데도 마치 5월 18일 오후 상황인 것처럼 사용됐다. 이렇듯 원본 영상에 대한 정확한 고증 없이 프로그램 제작에 사용했을 경우 본의 아니게 또 다른 왜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5.18 보도영상, 미래 세대 역사적 상상력의 원재료

원본 5.18 보도 영상들이 갖는 잠재적 가치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크다. 42년 전 현장을 비추었 이 미지로 보여줄 수 있는 유일무이한 재료가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게 교육용 학습 재료로 재해석되면서 가짜뉴스(fake news)가 범람하는 시대에도 진실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확고한 지표로 기능할 것이다. 또한 예술가들에게는 소중한 상상력의 원천으로써 더욱 가치가 높아질 게 분명하다. 새로운 문화적 감수성으로 차세대를 이끌어갈 영화감독이나 극작가, 소설가, 화가, 웹툰 작가, 뮤지컬 작곡가 등에게 ‘민주화운동으로서의 5.18’은 스토리와 서사를 제공하는 마르지 않는 샘물이다. 원본 5.18영상은 그들에게 모호한 상상이 아니라 진실의 밑바닥에서 솟아나는 맑은 영감의 원천을 발견할 수 있게 할 것이다. 황지우 시인은 ‘서사는 상상력이 라는 이스트(호모관)로 세계를 부풀리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하이테크 시대 원본 5.18 영상은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서사 전문가들에 의해 충분히 부풀려지고 잘 형상화되기 위해 미리 준비된 역사적 상상력의 원재료인 것이다.



2022년 한국영상기자협회

전국 회원 연수

일 시: 2022년 7월 13일(수) ~ 15일 (금) (2박 3일)
장 소: 부산 '베스트웨스턴 플러스 부산 송도호텔'

주최 한국영상기자협회

후원 한국전파진흥협회

7월 13일 수요일 (1일차)		
등록 및 숙소 배정	11:30 ~ 12:40	
[함께 모색하는 영상기자의 발전] 1	13:00 ~ 14:00	- 협회 현황 공유 및 참가자 자기소개
<회원 토론: ENG카메라의 미래와MNG장비의 발전> 1 (협회원 연구팀 연구 결과 발표)	14:00 ~ 15:30	- ENG연구팀 (MBC권혁용, MBC총복김병수, SBS김남성) 대표자 발표 - MNG연구팀(MBN이우진, OBS이영석, KBS박장빈) 대표자 발표
[함께 모색하는 영상기자의 발전] 2	16:00 ~ 18:00	- KCTV 김용민 기자가 말하는 2021 한국영상기자상 수상작 <월랑바다>의 취재, 제작기
[함께 모색하는 영상기자의 발전] 3	18:00 ~ 22:00	- 송도 해변에서 함께하는 회원 한마당
7월 14일 목요일 (2일차)		
함께하는 “흰여울길” 산책	08:40 ~ 10:50	- 조별 산책 및 커피 토크회
[ENG카메라의 미래와 MNG의 발전] 2	11:00 ~ 12:30	- 장비사들이 이야기하는 MNG의 발전 (TVU, LiveU)
	13:30 ~ 16:00	- 장비사들이 이야기하는 ENG카메라의 미래 (소니, 파나소닉, 캐논)
[영상보도가이드라인 3년, 보도영상의 변화]	16:00 ~ 18:00	- <영상보도가이드라인> 저자 양재규 변호사가 보는 3년 간의 뉴스영상의 변화 - 언론 중재, 소송에 잦은 소재가 되는 문제들 - 영상 취재, 보도의 현장에서 겪는 현장기자들의 고민 Q&A - 협회영상기자상 심사서서 느낀 영상보도의 문제점들
[함께 모색하는 영상기자의 발전] 4	18:00 ~ 22:00	- 협회 발전과 영상기자 위상 강화를 위한 회원 토크
7월 15일 금요일 (3일차)		
[함께 모색하는 영상기자의 발전] 5<영상기자 온라인 콘텐츠의 성공의 ABC>	10:00 ~ 12:00	- MBC 손재일 영상기자 (MBC디크리에티브센터 부장, 온라인콘텐츠 ‘14F’, ‘소비더미나’ 기획, 연출)
마무리 모임	12:00 ~ 14:00	

“오늘의 힌츠펀터 기자를 찾습니다”

2022 힌츠펀터국제보도상, 6월1일부터 두 번째 국제 공모 돌입
10월 27일 광주 ‘옛 전남도청 앞 민주광장’에서 시상식 개최 예정

한국영상기자협회와 5·18기념재단이 공동 제정한 '힌츠펀터국제보도상'이 지난해 제1회 시상식을 성공적으로 치른 데 이어 올해 제2회 수상작 선정을 위한 국제 공모에 들어갔다. 힌츠펀터국제보도상 조직위원회(공동위원장 나준영·정동년)는 지난 5월 12일 광주 5·18기념재단 기억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2 힌츠펀터국제보도상” 국제공모와 심사 일정, 수상작 발표, 시상식 등 향후 일정을 공개했다.

국제공모 기간은 이달 1일부터 7월 17일까지이며, 힌츠펀터국제보도상 공식 홈페이지(<http://www.hinzpeterawards.com/>)를 통해 접수한다.

출품 대상은 지난해 6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방송이나 온라인 매체를 통해 송출된 영상보도물이다.

-경쟁부문 대상에 '기रो에 선 세계상', '뉴스상', '특집상', 비경쟁부문인 '오월광주상' 등 4개 부문 공모...수상자에게 트로피와상금 1만불 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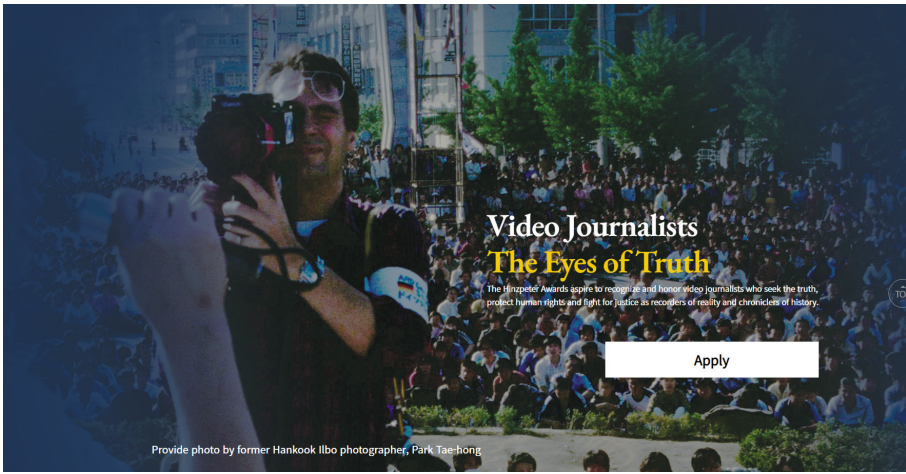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뉴스부문의 출품 분류이다. 작년 공모에서 뉴스부문에 방송시간을 5분으로 제한했던 규정을 없애 TV뉴스와 온라인뉴스를 통해 방송된 민주주의, 인권, 평화를 주제로 한 영상작품들의 뉴스들이 방송시간 제한 없이 출품될 수 있도록 했다. 뉴스부문과 특집 부문은 각각 '공모 주제와 관련된 시의성 있는 영상 보도들 중 우수작 1개 작품', '공모 주제와 관련된 탐사 보도·뉴스 다큐멘터리 영상들 중 우수작 1개 작품'이 선정된다. 출품작 가운데 뉴스부문과 특집부문의 구분 없이 가장 우수한 평을 받은 영상기자의 작품이 경쟁부문 대상인 '기रो에 선 세계상' 수상자로 선정될 예정이다.

비경쟁부문 공모상인 '오월광주상'은 공모를 통해 추천되거나 조직위에서 업적 조사를 통해 후보로 추천된 영상기자나 단체, 그들의 업적을 담은 영상을 별도의 '오월광주상' 심사위에서 심사해 확정할 예정이다.

각 부문 수상자들에게는 미화 1만불과 '평화의 소녀상' 작가인 김운성 작가가 제작한 트로피가 수여될 예정이다.

-힌츠펀터 기자가 근무했던 독일 ARD-NDR 방송사 시사국장·국내외 명망있는 영상기자·언론인·학자·각계 전문가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

2022 힌츠펀터국제보도상 심사에는 국내외의 명망있는 영상기자와 언론인, 언론학자, 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해외 심사위원으로는 힌츠펀터 기자가 근무했던 독일 ARD-NDR 방송의 마



리오 슈미트 시사국장을 비롯해 아흐메드 아사프 로이터통신 비디오 총괄 에디터, 브루노 페데리코 2021 힌츠펀터 국제보도상 특집상 수상자, 사본 루블 알자지라 제작책임자 등이 위촉됐고, 국내에서는 서태경 2022 영상기자상 심사위원장, 채영길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겸 민언련 공동대표, 이재의 5·18 기념재단 연구위원 등 영상기자와 언론학자,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1회 대상 수상자 미하일 아르신스키·주한독일대사 “힌츠펀터국제보도상 성공

기원”

조직위는 위르겐 힌츠펀터의 기자정신과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전 세계 언론인들에게 알리기 위해 '저항의 기록', '보호의 시선', '진실의 역사'라는 세 가지 주제로 2022 힌츠펀터 국제보도상 후보 영상을 제작, 공개했다.

한편, 제1회 힌츠펀터국제보도상 대상 수상자인 미하일 아르신스키는 조직위에 메시지를 보내 “힌츠펀터국제보도상을 통해 벨라루스 주변 정세와 루카셴코 정권 하에 벨라루스 사람들이 겪는 고통에 관심을 가져 주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매우 감사드립니다.”며 “힘든 상황 속에서 사람들에게 진실을 전달하는 것보다 더 큰 가치는 없다.”고 영상기자들과 언론인들의 공모 참여를 독려했다.

1회 국제공모부터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준 미하일 라이펜슈를 주한독일대사도 “힌츠펀터 국제보도상이 언론의 자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정부가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호, 촉진, 이행해야 할 의무를 상기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올해 힌츠펀터국제보도상의 성공을 기원하는 영상을 보내오기도 했다.

9월 6일 수상자 발표, 10월27일 광주 전남도청앞에서 시상식 개최

제2회 힌츠펀터국제보도상 수상자는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6일 발표된다. 시상식은 홀수해는 서울, 짝수해는 광주에서 개최하기로 한 데 따라, 오는 10월 27일 저녁 광주 ‘옛 전남도청 앞 민주광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상식은 5.18이 가져온 한국의 민주화와 언론자유와 성과를 함께 기억하고, 전 세계에 민주주의, 인권, 평화, 언론자유의 진전을 촉구하는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오주아 기자 (wja6476@gmail.com)

현장에서

“독재와 권력에 맞설 우리의 무기는 손에 든 카메라와 마이크입니다.”

미하일 아르신스키(벨라루스)

2021힌츠펀터국제보도상 '기रो에 선 세계상' 수상자



“2021힌츠펀터국제보도상”에 참여하게 된 건 동료 덕분에이었습니다. 저는 제 다큐멘터리를 출판한 적이 없어 수상 경력이 없었습니다. 저는 동료의 요청대로 출판 양식을 작성했고, ‘힌츠펀터국제보도상 심사위원회’가 저를 ‘기रो에 선 세계상’ 수상자로 선정했다는 메일을 받던 날이었습니다.

힌츠펀터국제보도상의 심사위원회가 제 작품을 평가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제 다큐멘터리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들이 벨라루스 사람들이 겪고 있는 모든 일을 알게 되었기를 바랍니다. 힌츠펀터국제보도상을 통해 벨라루스 주변 정세와 루카셴코 정권 하에 벨라루스 사람들이 겪는 고통에 관심을 가져 주신 대한민국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힌츠펀터국제보도상을 수상한 후 제 삶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폴란드에 있는 BelsatTV에서 근무하며, 2020년 이후 루카셴코 독재 정권의 언론과 비정부기구에 대한 탄압을 피해 벨라루스를 떠난 독립 언론인들의 발전을 돕고 있습니다.

저는 벨라루스를 떠나야만 했던 평범한 벨라루스 사람들과 제 영화의 영웅들을 만났습니다. 제 작품에 대한 엄청난 찬사도 받았습니다. 일반인들은 감사를, 동료들은 존경을 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에게 속편을 만들 거냐고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계획은 있지만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입니다. 만약 속편을 제작한다면, 속편은 굉장히 슬픈 작품이 될 것입니다. 루카셴코 정권은 전체주의 체제로 바뀌고 있으며, 정치범들과 탄압을 피해 떠난 벨라루스 사람들이 매우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벨라루스는 우크라이나 침략에 동참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감옥에 갇힐 뿐만 아니라, 죽고 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입니다. 시청자들에게 희망을 보여주고 싶지만, 제가 직접 목격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희망을 전달할 수 있을까요?

영상기자를 비롯한 언론인과 다큐멘터리 제작자 여러분! 힘든 상황 속에서 사람들에게 진실을 전달하는 것보다 더 큰 가치는 없습니다. 독재 정권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감옥에 가두고,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손에 든 카메라와 마이크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술을 사용하든 어떤 걸 발견하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알게 된 사람들과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중요합니까! 우리는 취재와 보도로 선전을 비난하고, 독재 정권의 거짓말을 허물었습니다. 힌츠펀터 기자가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참상을 취재하지 않았다면, 세상은 전두환의 범죄를 알지 못했을 겁니다. 용감무쌍한 벨라루스 언론인들과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세상은 루카셴코 정권의 범죄를 알지 못했을 겁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많은 언론인들로 인해,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부차와 마리우폴에서 발생한 러시아의 전쟁 범죄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기리며, 우리의 일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세상이 ‘진실을 알리기 위한 당신의 작품’을 알 수 있도록 ‘2022 힌츠펀터국제보도상’에 출품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장에서

카메라와 아이디어로 담아낸 현실의 부당함과 저항, 인간의 투쟁이 세상의 조명을 받도록

브루노 페데리코 (이탈리아 영상기자)

2021힌츠펀터국제보도상 특집상 수상자



저는 인권운동가로 활동하다 10여 년 전 영상기자가 되었습니다.

콜롬비아 외딴 지역에서 노조와 농민단체들과 일했는데, 엘리트 계층과 외국 회사들에 의한 살인, 살해 위험, 강제 실종, 추방, 가난을 포함한 심각한 폭력과 학대 가 너무도 강력했습니다.

그때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말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영상기자가 되어 손에 든 카메라와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로 제 작품에 현실의 부당함, 저항, 인간의 투쟁에 대해 담았습니다.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이 항상 저항이 바라는 만큼의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곳에 있었고, 그것을 목격했고, 우리의 주제인 투쟁의 주인공, 폭력의 피해자, 변화를 촉구하는 활동가와 함께 시각적 서사를 창조하는 행위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상기자로서, 우리는 사람들이 그들 자신을 알아볼 수 있는 이야기를 엮어내고, 사건들과 이야기들에 역사의 합당한 위치를 부여하고, 심지어 상상불만으로도 그 이야기가 더 많은 대중들에게 조명 받을 수 있게 합니다.

한국영상기자협회에서 힌츠펀터국제보도상 출품을 제안 받았을 때, 저와 같은 영상기자였던 위르겐 힌츠펀터의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몰랐다는 걸 인정하기 부끄러웠습니다. 위르겐 힌츠펀터는 광주 대학살을 폭로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이 보도를 통해 대한민국의 용감한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데 기여했습니다. 위르겐 힌츠펀터의 이야기를 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감사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만 해도, 유럽이 지중해를 건너는 이민자들과 망명 신청자들에게 부과한 비참한 상황부터 미국인 경찰관이 길거리에서 무릎을 꿇으며 흑인 미국인 살해에 대해 사죄하는 장면까지, 많은 이야기를 담은 영상들이 집단적인 지식과 양심을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다.

저와 제 동료인 나자 드로스트와 카를루스 빌라론은 미국에 들어가려고 다리에 갇혀 건너는 카메룬,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아이티 출신 이민자들과 망명 신청자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 PBS NewsHour의 펄스적인 여행 시리즈를 촬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그들과 함께 걸었습니다.

밀수업자에게 버림받은 남자들, 임신부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은 위험한 지형과 가슴 높이의 강을 스스로 헤쳐 나가야 했습니다. 그들은 길을 잃거나, 음식을 먹지 못하거나, 무장한 도둑들에게 돈, 텐트, 옷을 빼앗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강둑을 따라 흘러져 있는 배와 시체들은 여러 사람들이 익사하거나 죽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들의 용기, 끈기, 인간성은 그들이 마주한 위험과 방해물처럼 엄청났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알아주고, 알려주신 힌츠펀터국제보도상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이 상이 피할 수 없는 지리적 방해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정책 때문에 그 누구도 해서는 안 될 비참한 여정에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를 바랍니다.

영상기자, 영상 제작자, 카메라맨들이 모두에게 세상의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힌츠펀터국제보도상에 지원해 주기를 기원합니다.

- 경축!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법 국회 통과! - 강원도 628년의 역사를 품고, 강원특별자치도로 대전환!



강원특별자치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 강원도 명칭이 강원특별자치도로 변경
- 특별자치도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 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 계정 설치 지원 가능
-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노력
- 자치사무의 위탁, 주민투표, 인사교류 및 파견, 지역인재 채용 등의 특례

대법원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에 방송사들 “우리는?”

지난달 대법원이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무효 판결을 내놓자 임금피크제를 실시해 온 방송사들도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하지만 KT 전·현직 근로자들이 임금피크제로 인해 삭감된 임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패소 판결을 내리는 등 임금피크제를 둘러싸고 상반된 판결이 나와 관련 판결이 언론사 임금피크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지수다.

언론사 가운데 가장 먼저 임금피크제를 실시한 MBC는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조합원 설명회를 여는 한편 회사 쪽과 교섭에 나섰다.

〈방송사별 임금피크제 현황〉	
KBS	정년 2년 연장 대신 기본급 삭감. 만 58세~피크임금의 75% 지급 만 59세~49% 임금 보전. 인식년 실시
MBC	만 58세부터 일반직 및 촉탁직 40% 삭감, 전문직 25% 삭감
SBS	만 58세~ 전년도 기본급의 33% (임금총액 기준 평균 30%) 삭감 만 59세~만57세 기본급 100% 지급, 인식년 실시
YTN	만 55,56,57세~동결 만58세~40% 삭감 만59세~50% 삭감 임금피크제 도입 이후 1년은 임금의 40%를 받고 공로연수를 받을 수 있음.

MBC본부의 한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을 토대로 MBC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보니 보상 조치, 연령을 58세 이상으로 규정한 내용, 삭감률, 도입 목적의 타당성 여부 등에서 불법의 소지가 크다고 판단해 임금피크제를 폐지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다.”며 “회사쪽에서도 개선을 해야겠다는 입장이어서 곧바로 소송으로 가지 않고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수 노조인 MBC 제3노조는 사내 게시판에 소송인단을 모집하겠다고 나선 상태다.

2005년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해 온 MBC는 만 55세 혹은 29초봉의 경우 3%, 56세 3%, 만57세 4%, 58세 5%, 59세 7%를 삭감해 오다 2021년부터 임금피크제 대상을 만 58세로 조정하는 대신 삭감률을 일

반직과 촉탁직은 40%, 전문직은 25%로 높였다.

MBC본부 관계자는 “노사협의회와 별도로 임금피크제만 관련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실무 교섭은 이미 한 차례 진행했고, 다음달 초 회사쪽과 공식 교섭 자리가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SBS도 노동조합이 조합원 의견 수렴에 나선 상태다.

언론노조 SBS본부 정형택 본부장은 “노무 검토를 마쳤고, 소송을 통해 임금피크제를 무효화할지, 사측과 교섭을 통해 노동자의 손실 부분을 줄이는 방향으로 감지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SBS는 유연근무제와 시간외수당 합의가 7월에 예정되어 있어 이와 연계하여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언론노조 KBS본부도 대법원 판결이 난 지난달 26일 낸 성명을 통해 “(KBS의) 임금피크제 위법성은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단서가 있지만, 현재 회사의 임금피크제 중 최소 1년차는 단순한 연령 차별일 가능성이 높다.”며 “임금피크제로 피해를 받는 노동자가 생기지 않도록 회사에 조속한 대책마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만55세부터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YTN은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여러 대응 움직임이 감지된다. 언론노조 YTN지부 관계자는 “2020년 임금협상에서 임금피크 개시일을 만57세까지 미루자고 했는데, 추산을 해 보니 금액이 너무 커져서 시행을 못했고, 2021년에는 임금피크 대상자 가운데 삭감이 많이 된 사람의 경우 일정 금액 이하로 내려가지 않게 최저 하한선을 마련했다.”며 “올해는 삭감을 조정과 임금피크 개시 연령을 높이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수노조인 YTN방송노조는 대법원 판결 이후 사내 문의가 많아 로펌에서 자문을 받았으며 해당 내용을 공개했다. ‘정년을 늘려 고용을 보장하면서 도입한 임금피크제는 도입 목적이 타당하다’는 해석과 관련해 방송노조는 법 개정으로 근로자 정년이 60세로 강제 연장되었기 때문에 ‘정년 연장’이 임금피크제 시행을 위한 적당한 보상조치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제도 시행

전후로 해당 직원의 업무 내용과 강도가 차이 없는 것은 물론 일부 대상자의 경우 ‘하루 전담’을 맡아 업무 강도가 더 강해졌다고 주장했다.

YTN방송노조는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회사 측의 조속한 대응을 촉구하는 한편 “임금피크제로 인한 손실분 회복을 위해 소송이 필요할 경우 집단소송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하지만 회사 측은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은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방송사 임금피크제는 사례가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SBS는 대법원 판결 이후 SBS본부가 사내 게시판을 통해 임금피크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측에 대한 마련을 촉구하자, ‘알림’을 통해 자사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형이어서 대법원 판결 사례와는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MBC 관계자는 “노조에서 협의 요청이 왔으니 협의를 해 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지만, 폐지에는 미온적인 분위기로 전해졌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산하 130여개 조직을 대상으로 임금피크

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단위노조에 ‘대상조치(임금 삭감에 따른 보상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임금 삭감만이 이뤄지는 경우 임금피크제를 폐지할 것, 대상조치가 다소 부족하나 임금피크제 존속이 필요하면 단체교섭을 통해 대상조치를 조정할 것’을 권고한 상태다.

언론노조는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30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지침을 전달 방침이다.

안경숙기자 cat1006@naver.com

2022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정동년 공동조직위원장 별세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공동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동년 5.18기념재단 이사장이 지난 5월 29일 오전, 심장마비로 별세했다. 향년 79세인 고인은 전남대 화학과 재학 중 총학생회장을 지냈고 1964년 6.3항쟁에 참여해 한일교육의교반대 투쟁을 이끌다가 구속됐다. 전남대 복학생 신분이던 1980년 5월, 전두환 군부에 의해 연행되어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으로 모진 고문을 당했다. 군사재판에서는 ‘광주사태 주동자로 지목돼 내란수괴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1982년 12월 성탄절 특별사면조치로 석방됐다.

이후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 규명활동을 벌이며, 민주주의민족통일 광주·전남연합 공동의장, 5.18기념사업추진위원회 사무국장, 5.18기념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했고, 지난 1999년에는 광주 남구



청장에 당선되어 구청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지난 해 한국영상기자협회와 5.18기념재단이 공동으로 제정한 ‘힌츠페터국제보도상’의 초대 공동조직위원장을 맡아 민주주의, 인권, 평화의 5.18정신과 한국의 시민과 언론인들이 만들어온 언론자유, 5.18기념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했고, 지난 1999년에는 광주 남구

고인의 장례는 지난 5월 31일 광주광역시 옛전남도청 앞 민주광장에서 ‘5.18 민주국민장’으로 치러졌고, 유해는 국립5.18민주묘지에 안장되었다. 한국영상기자협회는 나준영 회장이 장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고인이 일생을 바쳐 노력해온 한국의 민주화와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성공을 위해 헌신했던 활동을 추모했다.

7월 7-8일 데스크-지부(회)장 연수 7월 13-15일 전국회원연수 부산서 개최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서울서 ‘시니어영상기자연수’ 도 예정

한국영상기자협회는 오는 7월 7일부터 8일, 7월 13일부터 15일 두 차례에 걸쳐 전국 회원사 데스크-지부장연수와 전국회원연수를 각각 개최한다. 이번 두 차례의 연수에서는 “영상보도가이드라인 제정 4년차 취재현장과 뉴스의 변화”, UHD전환을 앞둔 상황에서 고민해 보는 “ENG카메라의 미래와 MNG 송출장비의 발전”, 영상기자가 온라인 콘텐츠제작 성공을 위한 “온라인콘텐츠제작의 ABC”를 교육하고, 협회 발전을 위한 회원들 간 토론과 회원친목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눈여겨 볼 프로그램은 “ENG카메라의 미래와 MNG송출장비의 발전”세션이다. 이 프로그램의 발표를 위해 전국에서 영상취재장비를 담당하고 있는 각 방송사의 영상기자들이 모여 ENG연구팀과 MNG연구팀을 구성해 지난 3주



간 연수발표를 위한 연구작업을 벌여왔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회원 설문조사도 실시했다. 이번 두 차례의 연수에서 그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고, 회원세미나에 이어 소니, 파나소닉, 캐논, TVU, Live-U 등의 장비사 관계자들이 자신들의 장비개발방향과 특징을 설명하고, 연수참가자들이 직접 장비들을 테스트해볼 수 있는 시연회도 예정되어 있다.

오는 8월 31일부터 9월1일까지 2박3일간 ‘시니어영상기자’ 연수가 서울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 연수는 전년도에 협회와 한국언론

진흥재단, 노사발전재단이 공동으로 기획해 개최했는데, 참가자들의 호응과 공동개최단체들의 좋은 평가로 2박3일 연수로 확대해 개최한다. 이번 연수에서는 정년과 제2인생을 고민하고 있는 50세 이상 영상기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은퇴 전문가들의 조언과 영상기자로써 은퇴 이후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선배영상기자들의 경험담, 시니어은퇴영상기자의 미디어교육 전문가 등 다양한 제2인생의 진로를 설계하고 함께 모색하는 연수가 될 것이다. 연수신청은 7월말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2022년 5월, 6월 협회원 인사동정

KBS인사
600KBS광주총국사제대부부장정년퇴임
51 KBS광주총국사무대경력기자입사

MBC인사
뉴스영국
61 정용식 국장직급 승진
61 양동암 국장직급 승진
613 손지은 (경력사원) 수습면제 임용

SBS인사
김홍식 기자퇴직

YTN인사
보도국영상취재1부부장이승주
보도국영상취재1부부장박민영
보도국영상취재1부부장최영국
보도국영상취재2부부장김태운
본부장대우

=====


보도국영상취재1부부장대우정철우
보도국영상취재1부부장대우고민철
보도국영상취재2부부장대우양준모
본부장

=====

보도국영상취재2부부장정원식
본부장대우
광주전남영상기자협회장
622 김동욱 YTN국장 선임

[바로 잡습니다]
4월 30일 발행된 영상기자13호 편집 실수로 인한 오다 정정안내드립니다. 협회원분들의양해 부탁드립니다.
-편> <역대 최약의 '영대' 산물연정을 취재하다> <역대 최약의 '울진' 산물연정을 취재하다>

※ 외부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영상기자Korea Video Journalist Association

발행·편집인 나준영
편집위원 김용민, 김재욱, 김준호, 김현기, 김현석, 김형수, 박태범, 양재혁, 양현철, 유종현, 이지호, 이한범, 정영근, 전상범, 정중배, 현세진, 황종원
취재기자 안경숙, 오주아 **행정** 허은지 **제작** 미디어이

1999년 4월 23일 창간
2019년 8월 19일 등록번호 양원, 마(00009)(격월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한국영상기자협회 홈페이지 http://www.tvnews.or.kr
팩스 : 02 3219-6478 / 전화 : 02 3219-6476-7

한국영상기자협회
우) 07995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5층



**예 약·문의 전화도
어려웠던 홍보도
모 두 다 편 한 일 로**

[사장님 AI 비서팩]이 알아서 척척 해결해요!

고객 전화 한 통, 한 통이 소중한 사장님을 대신해
AI가 전화응대를 도와주고 가게정보 안내와 홍보까지 해주니까

사장님의 장사가 더욱 편해지도록
KT가 함께 일하겠습니다.

SAMSUNG



FINALLY.
BESPOKE INFINITE

취향 그 너머까지도

RESPECTED BY **BESPOKE**
Infinite Line

*기능은 일부 모델 및 칸에 한하며 연출된 이미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